



# 이광종號 ‘필승카드’는 ‘와일드 카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발표  
‘고공 폭격기’ 김신욱·‘멀티’ 박주호·‘거미손’ 김승규 발탁  
전남 이종호·김영옥·안용우도 승선...28년만의 금 도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이광종호(號)가 ‘고공 폭격기’ 김신욱(26·울산), ‘멀티플레이어’ 박주호(27·마인츠), ‘거미손’ 김승규(24·울산) 3명을 ‘와일드카드’로 내세워 28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전남 드래곤즈를 이끄는 젊은 피 이종호(22)·김영옥(23)·안용우(23)도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광종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감독은 14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명의 와일드카드(23세 이상 선수)를 포함한 20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9월 1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세 차례(1970년 공동 우승·1978년 공동 우승·1986년 우승) 정상에 오른 한국은 1986년 서울 대회 우승 이후 28년 만에 정

상 탈환에 도전하게 된다.  
공격의 핵심으로 꼽힌 손흥민(22·레버쿠젠)이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합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광종 감독은 196cm의 장신으로 제공권과 골 결정력을 모두 갖춘 검증된 공격수인 김신욱을 최전방 공격자원으로 발탁했다.  
또 경험이 적은 어린 수비수를 이끌 자원으로는 왼쪽 풀백은 물론 중앙 미드필더까지 맡아볼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인 박주호를 뽑았다. 이명주(24·알 아인)가 와일드카드 자원으로 거론됐지만 소속팀의 반대와 더불어 이광종 감독이 수비에 중점을 두면서 박주호가 기회를 잡았다.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줄 골키퍼로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 차세대 국가대표 골키퍼로 떠오른 김승규가 선택됐다.  
이광종 감독은 “23세 이하 선수 위주로 팀이 꾸

려지면서 와일드카드로 뽑힌 선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명의 와일드카드 선수 모두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한 17명의 23세 이하 선수에서는 ‘광양 루니’ 이종호와 일본 무대에서 뛰는 이용재가 공격수로 발탁된 가운데 성인 대표팀을 오가는 윤일록(서울)과 올해 K리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골잡이 김승대(포항)가 무난히 이름을 올렸다.  
박주호가 수비수가 아닌 미드필더로 뽑힌 가운데 왼쪽 날개에는 브라질 월드컵 직전 부상으로 낙마한 김진수(호펜하임)가 선택을 받았다. 이광종호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장현수(광저우 부리)도 발탁됐다.  
◇2014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명단(20명)  
▲골키퍼(GK) = 김승규(울산) 노동건(수원) ▲수비수(DF) = 김진수(호펜하임) 박해성(성남) 김민혁(최성기(이상 시간 도스) 이주영(몬테디오 야마가타) 장현수(광저우 부리) 임창우(대전) ▲미드필더(MF) = 김영옥 안용우(이상 전남) 손준호(포항) 이재성(전북) 박주호(마인츠) 문상윤(인천) 윤일록(서울) 김승대(포항) ▲공격수(FW) = 이종호(전남) 김신욱(울산)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  
/연합뉴스

## 북한, 14개 종목 선수단 352명 파견

### 인천 AG 참가 신청서 제출

남북 실무접촉 결렬로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북한이 선수단 파견을 최종 확정했다.  
김영수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장은 14일 “북한이 어제 저녁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통해 14개 종목 선수 150명을 포함해 총 352명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은 참가국이 조직위원회에 직접 하지만 북한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OCA를 통해 간접 신청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남녀 총 38명으로 가장 많고 수영 16명, 양궁 8명, 육상 4명, 복싱 7명, 카누 2명, 체조 12명, 유도 10명, 공수도 5명, 조정 8명, 사격 9명, 탁구 10명, 역도 12명, 레슬링 9명 등이다.  
북한은 여기에 감독과 코치, 본부임원 등 임원 173명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총 32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심판, 취재진 등 29명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응원단을 제외한 참가인원만 352명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 중 임원의 숫자는 다음 달 초순 예정인 인천조직위의 각국 선수단 등록회의(DRM)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통상 국제종합대회에서는 참가 선수 수의 50%가량에 한해 임원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당시 북한은 18개 종목에 선수 184명, 임원 132명 등 총 316명을 파견했다. 여기에 응원단 280명과 취재진 및 민경보호 선원 등 총 703명이 부산을 찾았다.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이동 경로도 유쾌이 드러났다.  
인천조직위 관계자는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되면 비행기로 평양에서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수 엔트리 등록 마감일인 15일을 앞두고 OCA 회원국인 45개국 모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천 아시안게임은 ‘퍼펙트 아시안게임’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주FC, 상승세 타고 3위 간다

내일 충주와 홈경기...6경기 무패·상대전적 우위



광주 FC가 쾌조의 상승세 속에 3위 도약을 노린다. 여름이 가는 게 아쉬운 광주 FC다. 올 여름 K리그 챌린지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광주였다. 최근 6경기 전적이 4승1무1패, 승점 13점을 쓸어담으면서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앞선 안양과의 원정경기는 광주의 상승세에 불을 붙인 경기였다.  
빛속의 혈투가 벌어진 이날 광주는 전반 14분 터진 마철준의 시저스 킥으로 1-0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원정정크스(1승3무5패)에 빠져있던 광주는 갑탄사가 절로 나오는 골로 천금 같은 승점 3점을 더하며, 8위에서 5위까지 도약했다.  
이 승리와 함께 공격수 김호남과 디에고, 수비수 마철준은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K리그 챌린지 21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호마리요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광주에 연착륙한 디에고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 공격에 관여했고

수비 가담까지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호남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움직임이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결승골의 주인공 마철준의 이름도 빠지지 않았다. 마철준은 “수비수임에도 환상적인 시저스킥으로 결승골을 터트렸다”는 호평 속에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광주의 분위기가 뜨겁다.  
상승세의 광주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충주와 홈 경기를 치른다. 안방에서 승리 행진을 이어가며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접어들겠다는 각오다.  
7승7무7패로 승점 28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와 3위 안양(9승3무8패·승점 30)의 승점 차는 2점. 주말 경기에 따라서 3위까지 진입할 수 있다.  
최근 광주의 흐름도 좋고 홈에서 5승3무2패를 기록하며 안방 강세를 보였다. 22라운드에서 만나게 된 충주도 반가운 상대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지만 최근 충주전 6경기 무패행진(3승 3무)은 이어지고 있다.  
마철준이 가세한 단단한 포백 수비라인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광주 수비진은 최근 3경기에서 1실점만을 허용하는 잔물 수비를 하며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로 영입된 윤상호, 박현, 디에고 등도 기존 멤버들과 안정적인 호흡을 맞추며 공격을 이끌었다.  
홈에서 강한 광주가 최하위 충주를 상대로 여를 질주를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양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더한 광주가 오는 16일 최하위 충주를 제물 삼아 3위 도약을 노린다. 사진은 박현가 운테이 앞선 안양전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다투고 있는 모습. <광주 FC 제공>

## 전남도체육회

### 상임부회장제도 부활

27일 임시 대의원 총회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제도가 부활된다.  
14일 전남도체육회(회장 이낙연 전남지사)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4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으로는 상임부회장직 부활을 담은 규약 개정과 임원 및 집행부 선임의 건이다.  
이날 총회에서 규약 개정이 이뤄지면 상임부회장직은 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지난 2007년 4월 전남도민체전이 열린 강진의 도식당에서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의 불화가 발단이 돼 사무처장이 전남씨름협회 전무이사를 흥기로 쫓겨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상임부회장 제도가 폐지됐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상임부회장 폐지 이후 전남체육은 크게 위축됐다”며 “상임부회장 부활은 전남 체육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남체육의 중흥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